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2. 4.(목) 12:00
(지 면) 2025. 12. 5.(금) 조간

옛 밀양대학교, 100년 역사를 품은 소통협력공간으로 변신! 지역주민 곁으로

- 행정안전부·경남·밀양시 협력, 밀양소통협력공간 12월 4일(목) 정식 개소
- 100년 역사 옛 밀양대학교, 2004년 폐교 후 원도심 내 21년간 방치… 행정안전부 소통협력공간 사업(2022년 선정)을 통해 지역거점으로 재탄생

- 100년 역사를 지닌 옛 밀양대학교가 소통협력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 주민의 곁으로 돌아온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경상남도·밀양시와 함께 옛 밀양대학교의 강의동을 ‘밀양소통협력공간’으로 새단장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 4일(목)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행정안전부 ‘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’은 원도심 유휴공간을, 주민·사회 연대경제 주체·민관산학 등이 참여하여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.
- 이번에 밀양소통협력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옛 밀양대학교는 1924년 농잠 학교로 개교 후 1997년 국립대로도 승격됐으나, 2004년에 폐교된 100년 역사의 지역대학이다.
- 폐교 이후 원도심에 21년간 방치됐으나,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시 문을 열게 됐다.
- 밀양소통협력공간은 지상5층, 2,774㎡ 규모로 ▲ 문턱 낮은 맞이공간 (커뮤니티 라운지, 옥상정원 등), ▲ 함께 쓰는 공유공간(대관 가능한

소회의실, 컨퍼런스룸, 공유주방 등), ▲ 입주 하는 독립공간(사회연대 경제 등 청년창업 오피스) 등으로 조성했다.

○ 입지 또한, 밀양읍성터, 500년 아리랑시장, 국보 영남루, 독립운동가 생가 등 지역사의 보고(寶庫)인 내일동·내이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에도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특히, 소통협력공간은 운영구상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와 실제 운영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공간으로 만들었다.

○ 장소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옛 밀양대학교 곳곳에 남아있던 수십 년 된 동아리 모집 포스터, 교구재 등 지역대학의 역사도 한켠에 전시한다.

□ 개소식 이후 지역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타운홀 미팅과 민관협력포럼도 개최한다.

○ 포럼에서는 ‘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현장 정책 설계의 방향’ 기초발제를 시작으로, ‘청년의 자리-세대의 이음-지역의 다음’, ‘지역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의 역할’, ‘지역가치를 높이는 자원의 선순환’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토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론장이 이어질 계획이다.

□ 한편,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모를 통해 총 9개소의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

○ 이번에 정식 개소한 경남 밀양을 포함하여 7곳이 정식 개소 했으며, 2곳(충남, 경북)이 개소를 앞두고 있다.

※ 정식 개소 7곳 : 강원 춘천, 전북 전주, 대전, 제주, 울산, 전북 군산, 경남 밀양

○ 정식 개소한 소통협력공간에는 140만 명('24.12월 말 기준)이 넘는 주민들이 방문하는 등 지역의 반가운 변화를 만드는 소통·협력의 거점으로 환영받고 있다.

- 김민재 차관은 “이번에 문을 여는 밀양소통협력공간은 지역주민과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”이라며,
- “100년의 역사를 가진 공간이 주민을 위한 열린 마당이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 ‘혁신’ 거점으로 재탄생하여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 써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	염성욱 (044-205-34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원한 (044-205-39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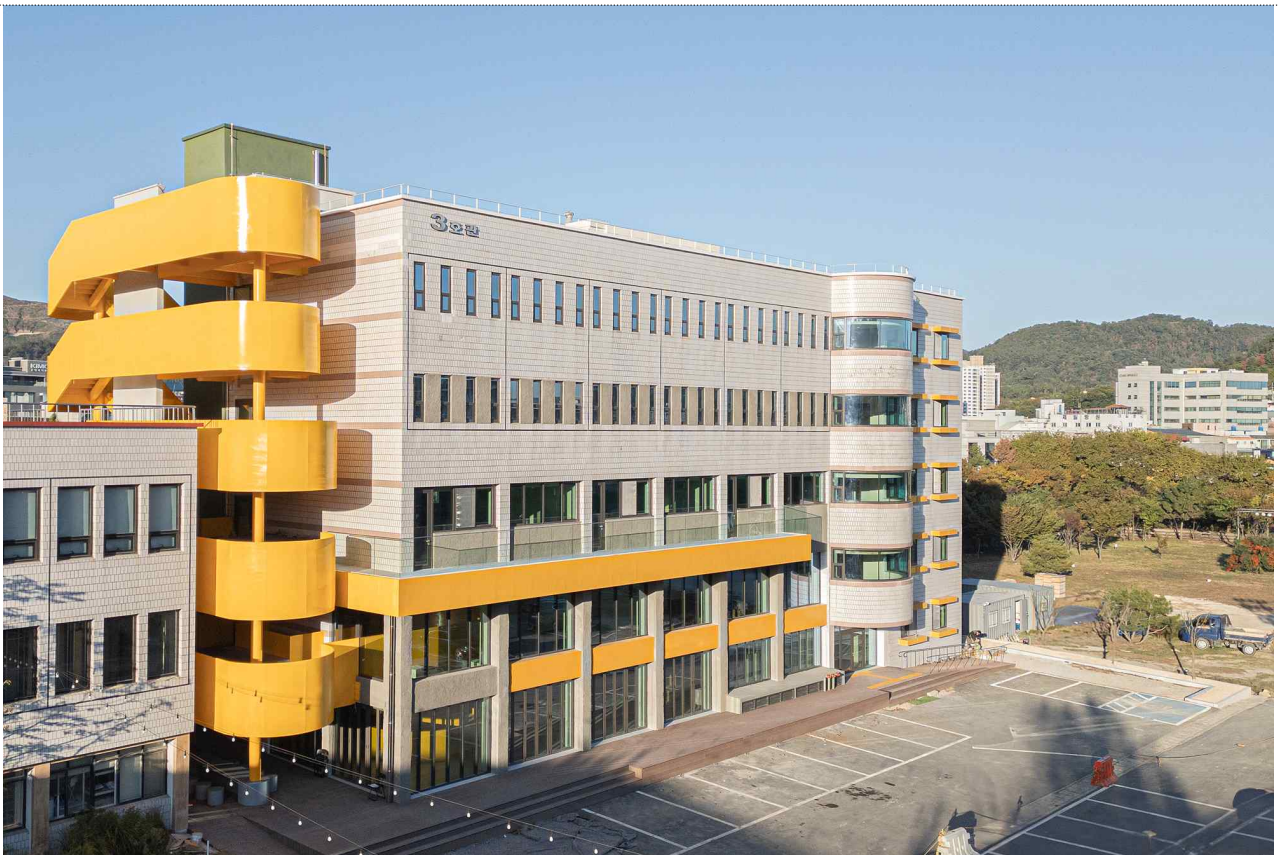


참고

「밀양소통협력공간」 사진자료 ※ 옛 밀양대학교



△ 100년 역사 옛 밀양대학교(1924년 개교 → 2004년 폐교 → 원도심 내 21년간 방치)



△ 밀양소통협력공간으로 새단장을 마친 옛 밀양대 강의동(건물외부는 최대한 보존)